



세계 보편적 가치를 지닌 한국적 형상, 아트퍼니처 디자이너 최병훈

한국적 정신을 압축한 형상으로서의 실체, 최병훈의 아트퍼니처는 곧 '나'다. 그는 한국인이라는 뿌리를 긍정한다. 예술과 공예와 디자인을 접목한 아트퍼니처는 그가 재창조한 한국 미학의 현현이다. 서양이 흉내 낼 수 없는 한국적 영혼이 깃들여 있다는 평가는, 단순히 유형이 아닌 우리의 문화와 정서를 현대적으로 담아내기 위해 스스로의 정체성부터 다시 치열하게 고민했던 작가에 바치는 헌사다. 아직 외국에 비해 가구를 예술로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 그 속에서 최초로 아트퍼니처 장르를 만들고 20년간 지속해온 최병훈은 '다르다'는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기 위해 아직도 매진 중이다.

올해 5월, 파리 다운타운 갤러리에서 홍익대학교 목조형가구학과 최병훈 교수의 열 번째 개인전이 열렸다. 다운타운 갤러리는 론 아라드, 찰스 임스, 르 코르뷔지에 등 세계적인 아티스트와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파리 최고의 예술가구 전문 갤러리다. 1996년 첫 파리 전시를 가진 이후 벌써 네 번째 초대전이다. 그는 전시 기간 동안 주변의 모든 갤러리를 돌아다니며 가구를 봤다. 그의 것과 같은 가구는 단 하나도 없었다. 스케일이 비슷하다고 해도 그의 작품이 놓였을 때와는 공간감, 즉 무게감이 달랐다. 다시 한번 교육

한 자신의 작업에 대해 확신하는 순간이었다고 했다. 2008년 독일 비트라 디자인 뮤지엄이 한국 디자이너로는 최초로 최병훈의 아트퍼니처 2점을 영구 소장 및 상설 전시한다고 발표했을 때 들었던 선정 이유는 작품에 담긴 독창적인 한국의 미의식이다.

예술가구 디자인에 관한 이해와 요구가 크지 않던 1980년대 '채집된 곤충' 시리즈로 시작해, 1990년 한국에서 최초로 예술과 디자인과 목공예를 접목한 아트퍼니처라는 새로운 장르를 시도했던 최병훈, 아트퍼니처는 기능성을 담보한 가구 디자인과 작가로서의 내면 세계와 감수성을 표현하는 순수예술, 사용자의 쓰임새를 고려한 공예의 세 가지 특징을 모두 갖는다. 서로 다른 세 가지 장르를 아우르지만, 최병훈은 아트퍼니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행태에 담긴 미의식을 꼽는다. 그 미의식의 근거를 최병훈은 우리의 무위자연 사상과 전통적인 오브제, 독자적인 문화가 갖는 '한국적 정체성'에서 찾는다. 한국인이라는 뿌리가 바로 그 정체성의 근간이다. 남들과 다르다는 가치, 그것을 재발견하고 재정의하며 긍정하는 과정을 누구보다 치열하게 겪었던 그가,

"가구디자인을 예로 들면, 우리는 출발이 늦었을 뿐 서양에 열등감을 느낄 이유가 없다. 내가 미국인이나 프랑스인이 될 수는 없다. 한국이라는 생태계에 서 있는 나를 인정해야 한다. 작가의 정체성은 곧 생명력이다. 생명력이 약하면 껍데기만 행위하게 되고 외부 조건에 쉽게 흔들리고 휘둘린다. 현재 수많은 디자인이 스타일링에만 치중한다. 근본적인 가치가 담기지 않는 디자인은 생명력이 없다." 뿌리가 없는 디자인은 고유한 전통과 문화가 쌓여온 지난 시간을 공유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깊이가 없다. 그는 서양과 동양의 문화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중국이나 일본하고 또 다른 것이 우리의 미학이라고 말한다. "우리의 미적 감성은 디테일보다는 전체에서 느껴지는 맛입니다. 서양 디자인은 데커레이션과 표현이 많은 반면 내 작품은 자신을 낮추고 과시하지 않는 선의 태도를 지닙니다. 깊은 무게감에서 우리나라 내면의 메시지를 담은 단순한 형태예요. 조선시대 달 항아리처럼 넉넉하고 여유 있는 형태에서 느껴지는 인간적인 체취와 심성처럼, 디자인이라는 것은 사용자에게 어떤 심리적 변화를 일으킴으로써 즐거움을 주는 매체인데, 그런 면에서 제 작품은 그들에게 전혀 새로운 것이었어요."

기존 가구에서 볼 수 없는 돌과 나무, 나무와 쇠, 쇠와 돌 등 물질의 대비를 시도했던 초기작부터 미묘한 긴장감을 주기 시작한 균형이 맞지 않는 최근의 가구 행태에 이르기까지 최병훈이 모티브로 삼는 대상은 다양하다. 크게는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무위자연이고, 작게는 청화백자, 불상, 목기러기, 나무 그릇 같은 생활 오브제들이 있다. 작업실에 늘 놓아두고 보는 작은 오브제들은 예부터 일상에서 쉽게 보고 사용하던 것들이다. 그는, 가까이 두고 오가며 보고 스치는 가운데 매번 거기에서 새로운 무언가를 "눈으로 먹

는다." 미적 경험을 축적하는 일상에서 자신만의 표현을 찾아낸다. 그렇다면 일상 환경이 바뀔 현재, 지금 세대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진심으로 갈구할 때야 비로소 보일 거예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게 눈앞에 있어도 들어오지 않아요. 작은 것이라도 찾으려 노력할 때 비로소 내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For over two decades, Choi Byung-hoon has incorporated Korean mentality and his Korean roots into his furniture art, that reflects a sense of "me." His furniture is a grafting of art onto crafts and designs, producing a symbol of Korean aesthetics. His highly praised works embody the Korean soul, and are a dedication to this artist who has long sought his own identity, in order to incorporate Korean culture and sentiments into his contemporary expression of art. The reality of Korea today, is that we are not yet fully able to appreciate furniture as an art form, and under such circumstances, Choi Byung-hoon has become the first artist to create a genre of art furniture.

Professor Choi Byung-hoon of woodworking and furniture design fame at Hongik University, held his tenth solo show at the Downtown Gallery in Paris last May. The gallery is one of the best galleries specializing in art furniture, exhibiting works by world renowned artists and designers like Ron Arad, Charles Eames, and Le Corbusier. It was his fourth invitation exhibition since his first show in Paris in 1996. During the exhibition, he went around to see furniture at all of the neighboring galleries. There was not a single piece of furniture that looked like his. Even if some looked similar in terms of scale, their sense of space was different. This was a defining moment, a point at which he became confident about the uniqueness of his work. The Vitra Design Museum in Germany announced in 2008 that it would include two pieces of art furniture by Choi Byung-hoon in its permanent collection and exhibition, a first among Korean designers, and the reason for its choice was due to the originality of the Korean aesthetic consciousness contained in his works.

He was the first in Korea to attempt a new genre called art furniture by linking art to designs and wooden crafts in 1990. Art furniture has all three characteristics of

"furniture design" and is based on functionality, "pure art" that expresses the inner world and emotions of its artist, and "crafts" that considers the needs of its end users. Choi, however, points out that the aesthetic consciousness in his shapes are the most important elements in art furniture, and that they find their basis in the "Korean identity" which is embedded in our concepts of letting nature be, traditional objects, and independent cultures. His roots as a Korean are at the very foundation of that identity. He has rediscovered, redefined, and reaffirmed the value of being different from others. "Taking furniture design as an example, there is no reason that we should feel inferior to the western culture. We just started later. I cannot become an American or a French artisan. I must be true to myself. The identity of an artist is his very life source. If that life force is weak, you will be easily swayed and influenced by external conditions. Numerous designers are currently concentrating on styling only. Designs that do not carry fundamental values have no life force."

Designs without roots are shallow in that they are unable to share the past, or reflect the cumulative learning of indigenous traditions or cultures. He says that Western and Asian cultures are basically different, and our aesthetics are also different from that of China or Japan. "Our aesthetic sensitivity can be best tasted not in its finite detail but in its entirety. Whereas Western designs have a lot of decorations and expressions, my works carry an attitude of understatement and modesty. They are in simple shapes, containing their messages within. Design is a medium that provides enjoyment by bringing about some psychological change in its users, and in that sense, my works were complexly new to my audience."

He has taken on a variety of objects as his inspiration, including images of Buddha, wooden containers, and wooden wild geese that he has frequently seen and used from previous periods. After all, he discovers his own expressions from his daily life of accumulating aesthetic experiences. "You can find inspiration only when you desire it from the bottom of your heart. If you don't feel the necessity, this inspiration won't be visible even if good things are happening right before your eyes."